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9.04~2026.09.11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미국, 2분기 청정전력 설비 17.1GW 신규 가동 (2026.09.04, Windtech International) 미국은 2분기 태양광 7.4GW, 육상풍력 5GW, 배터리 4.7GW 등 총 17.1GW의 청정전력 설비를 신규 가동. 이에 누적 설비 용량은 약 388GW로 확대
	● 인도, 신규 태양광·풍력 발전에 배터리 저장장치 의무화 추진 (2026.09.04, Reuters) 인도는 '27년 7월부터 신규 태양광·육상풍력 프로젝트 발전설비 용량의 최소 10%에 2시간 규모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또한 '29년부터 저장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Government	● 영국, 열대우림 보전기금에 약 \$540M 대출 투자 추진 (2026.09.04, ESG Today) 영국 정부는 전 세계 열대우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브라질 주도의 보전기금인 Tropical Forests Forever Facility (TFFF)에 약 \$540M를 대출 형태로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 영국,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 대대적 개편 제안 (2026.09.07, ESG Today) 영국 정부는 기업 공시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다 발표. 기업의 비재무 공시 요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포함됨. 환경 영향, 직원 다양성, 사회적 책임, 인권 등의 사안에 대한 의무 보고를 핵심 규율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제안
Corporations	● Google, 핀란드 €13B 투자와 연계해 원전, 풍력, 배터리 계약 (2026.09.09, ESG Today) Google은 핀란드 디지털 인프라에 €13B를 투자하며, Loviisa 원전 22년 장기 전력구매계약, 육상풍력 629MW, 배터리 94MW 등 청정전력 확보를 동시에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24시간 무탄소전력 조달을 강화
	● Yara, 유럽 최대 산업용 탄소포집 설비 가동 (2026.09.08, ESG Today) Yara는 네덜란드 Sluiskil 암모니아 공장에서 연 최대 80만톤의 CO2를 포집해 노르웨이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설비를 가동. 15년간 약 1,200만톤 저장에 예상. 이는 국경 간 탄소포집·저장(CCS) 밸류체인 첫 상업화 사례에 해당
Funds	● 대만 BLF, '30년부터 화석연료 신규 투자 중단 (2026.09.07, EIJF) 대만 연기금 BLF는 '30년부터 기후전환에 소극적인 화석연료 기업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금융배출량 공시도 당초 '29년 이후에서 '26~'27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 공무원퇴직연금기금과 중화우정도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면서 대만 4대 공적기금이 모두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동참
	● 영국 Border to Coast, Clean Growth Fund II에 £22M 출자 (2026.09.08, Clean Growth Fund) 영국 연기금 Border to Coast는 UK Opportunities Fund를 통해 Clean Growth Fund II에 £22M를 출자. Strathclyde Pension Fund에도 £10M를 투자하면서 펀드의 총 출자약정액은 £81M로 확대. 해당 펀드는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영국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하며 장기 수익과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추구
	● 노르웨이 NBIM, 독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사회 책임 강화 요구 (2026.09.09, IPE) 노르웨이 연기금 NBIM은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안 의견수렴에 참여해, 독일 상장사 감독이사회 책임 강화를 요구.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 임기를 줄이고 재선임 심사를 자주해야 한다 촉구. 개정안은 8월 5일 공개됐으며, 코드 위원회는 지침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고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 설명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